

불교문화계 2007년 전망

# 새로운 시도로 포교 외연 넓힌다

**2007** 올해 공휴일은 지난해와 같은 66일이다. 만일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총 116일을 쉬 수 있다. 제법 긴 이 시간들을 의미있게 채울 수는 없을까? 그동안 꾸준히 저변을 확대 온 불교문화계에 눈을 돌려보자. 불교계 단체와 예술가들은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시도와 발전을 선보이기위해 새해 벽두부터 머리를 동여댔다. 예정된 공연과 전시에는 미리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들의 내적인 성숙을 기대해보자. 올 한해 무용 미술 음악 분야에 걸쳐 예술 단체와 주목할만한 예술인들의 계획을 들여봤다.

1 지난해 11월 구인사서 일민 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2 한기능	3 구진경	4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5 손재현	6 지난해 7월 스페인어 영산재 공연을 하고 있는 법현 스님	



### 삼보불교음악협회

삼보불교음악협회는 올해 연주회 일정을 대폭 줄이고 한국불교음악역사관 완공과 찬불가 보급 운동, 반주용 악보 제작 및 캠페인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사장 운문 스님은 "8월말이면 현재 불사가 한창인 구기동 한국불교음악역사관이 완공된다"며 "이 곳에서는 한국 불교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며 상반기 협회 차원에서 불사완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력 사업으로 표방한 찬불가 보급 운동은 불자들이 주목할 대목이다.

찬불가 2천여곡을 책 세 권에 수록한 삼보불교음악 찬불가집 보급을 통해 전국 사찰의 법회의식에서 찬불가가 올바르게 불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그래도 전국 20여 지부 합창단이 총출동해 장엄한 음성공양을 7년째 꾸준히 선사하는 전국불교음악제는 올해 9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 한기능 (조각가)

"불교적 주제를 현대적 해석과 표현 방식으로 불교조각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점이 인정된다."

행원문화재단은 지난해 7월 조각가 한기능씨(56)를 예술분야 시상자로 선정할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상한가 명성에 힘입어 한 씨는 올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또다른 비상을 시도한다. 한씨의 명성을 전해들은 일본과 유럽 미술계에서 한씨에게 초대전을 열겠다는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한씨는 현재 부산과 제주를 오가며 5월 열릴 해외 초대전 준비에 한창이다. 기존에 선보인 작품들이 돌 안에 인간과 자연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면 올해는 수행 체험에서 우러나온 추상화된 불교 조각들을 선보일 작정이다.

한기능씨는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명상과 불교적 소재의 조각 작품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미술계에서도 호평 받고 있는 만큼 올해도 선(禪)과 정(靜)적인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구진경 (불화가)

"현대적인 불화가" 구진경 작가(41)는 지난해 불도를 형상화한 실험적 작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회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불화를 그리는 구 작가의 작품은 마치 흑백의 목판화 같은 느낌이 든다. 컴퓨터 그래픽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그래서 구 작가의 불화를 대하면 신세 대들듯 전혀 거부감이 없다. 구 작가는 이런 결과물들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올해 5월 개인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 주제 역시 '부처님'이다. 전시회에서는 불화 도상을 파격적으로 변형시킨 30여 작품을 선보일 생각이다. 그가 파격의 주제로 삼은 것은 디지털 프린트, 현존하는 예술작품 이미지에 그래픽 작업을 가한 것을 출력해 작품에 그대로 응용했다.

구씨는 "올 한해 불교미술계는 옛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려는 움직임과 그 전통위에 다양화된 현대적 기법을 가미한 작품 등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사무실에 걸려 있는 달력은 벌써부터 연주일정으로 뻗뻗하다. 니르바나는 올해 색다른 시도를 준비중이다. '저자와 함께하는 불교이야기'란 주제로 테마 연주회를 연다. 문화재, 문화, 수행 등 각 주제와 맞는 초대손님을 초청해 주제와 어울리는 레퍼토리로 음악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2월 8일 정우택 동국대박물관장 △3월 8일 천문학자 이시우박사 △6월 14일 원성스님 △8월 9일 키즈음악회 △10월 11일 이호신 화백 △12월 13일 분자스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니르바나는 테마연주 외에도 △5월 11일 봉축기념 니르바나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4월 7일-8일/9월 15일-16일 니르바나 템플스테이 연주회 △8월 16일 키즈음악회 △11월 1일 제5회 소아암 환자를 위한 음악회 등도 개최한다.

강행진 단장은 "현대화된 불교음악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문 불교음악을 창작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털어놨다.

### 손재현 (불교무용단장)

매년 창작발레를 선보이며 왕성한 창작열을 과시했던 손재현 동국대 체육학과 무용담당 교수(44)는 새 작품 준비에 어느때보다도 분주하다.

지난해에는 공연할 극장을 잡지못해 2002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무대에 작품을 올리지 못했다. 손 교수는 올 6월말 공연을 목표로 새 작품인 '전설의 꽃 풍년화' 시나리오 작업을 한창이다. 손 교수가 작품을 구상할 때 화두로 삼는 것은 '빛의 소리' '제망매가' 등 기존 작품처럼 '발레와 불교 철학과의 만남'이다.

손 교수는 올해도 철학을 바탕으로 각색한 줄거리에 이야기가 있는 연극적 요소를 대폭 가미한 창작 발레를 탄생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 손 교수는 무용수들의 복식과 세련된 무대장치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손 교수는 "올 한해 불교무용계에서는 관객과 눈높이를 맞춘 세련된 무대장치와 소품, 흥미로운 극의 전개 등 뮤지컬적인 요소가 혼합된 무용극이 많이 선보여 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 법현 스님 (동국대 교수)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8년전부터 해마다 7월이 되면 한국에 없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법현 스님에게 남다른 해이다. 소속중단인 태고종이 영산재를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것을 주력사업으로 선포하고 나섰다. 올 7월에도 법현 스님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초청 공연을 일찌감치 예약해 놓은 상태다. 이번 공연에서 법현 스님은 법패와 천수바라무, 요장무, 나비무 등 불교음악과 무용을 선보이게 된다.

법현 스님은 "한국불교무용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불교무용계에는 해외 초청 공연이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주일 기자

### 영산재 유네스코 등재위해 해외공연 더 적극적으로

불교음악역사관 8월 완공 찬불가 보급 등 주력

수행체험 바탕한 작품 해외 전시 위해 분주

'부처님' 주제 전시회 현대적 기법 가미 응용

저자 초청 테마연주회 전문 불교음악 창작 주력

설화 배경의 창작발레 복식·무대장치로 연구

##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 참선공지도자

개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심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개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 神 임상도통사



총재 무공 합장



세계지도자협회부총재 국제지도자협회부총재 혜성합장

####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7년 1월 18일 (목요일) 2007년 1월 20일 (토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 입금 계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도 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 국, 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 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월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 후 건강하게 통증을 없이 잘 걸었다.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생하여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진 스님은 영기가 빙의 되어 눈에 뵈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 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